탄소흡수림 조성 위한 환경축제 열린다

녹색 사찰 울산 백련사
4월 12일 오후2시 개최

환경 의식 고취 차원 개최
임현정 · 라마 등 특별공연
노플라스틱의 전시도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12일 오후 2시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배출하는 탄소흡수림은 맑은 환경을 위한 수호신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위해 공존을 생각하고 노래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4월 12일 오후 2시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환경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하고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돌아보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환경 명상을 통해 생활 가운데 실천 덕목을 약속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환경콘서트에서는 먼저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대웅전 앞 무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봄을 맞은 백련사는 녹색사찰답게 곳곳에 봄꽃이 만발했다. 콘서트 당일에는 벚꽃이 만개할 시기여서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피아노 곡조와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도 스님은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별명이 '나무와 손'이다. 손가락의 지문은 나무의 나이테를 의미한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환경운동을 위한 홍보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을 위한 음악가, 그린 아티스트 '라마'의 공연도 이어진다. 라마는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어쿠스틱 밴드 요술당나귀 보컬이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콘서트에서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 약속을 담은 피켓을 직접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하며 탄소저감운동에 함께한다. 또 환경 콘서트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 전후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진행되며 '노(No)플라스틱 전시회', '환경명상절 108배 체험', '미래를 생각하는 기후대응 피켓팅' 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도 스님은 "환경을 생각하는 본질만을 맛보는 콘서트가 될 것이다"며 "환경 콘서트의 모범 답안을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천도 스님은 "4월이 되면 벚꽃이 날려 도량 곳곳에 꽃비가 내릴 것이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오로지 지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현정 피아니스트는 역사상 최연소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했고 앨범은 음반사 EMI에서 전세계 발매했다. 이 음반은 한국인 최초는 물론, 역사상 최초로 데뷔 앨범이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와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하면서 클래식계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다. 3살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후 그녀는 12세에 자의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콩피에뉴 음악원을 5개월 만에 수석 조기졸업 한 인재다. 그 후, 루앙국립음악원에 진학하여 만 15살에 조기 졸업을 하였고, 그 다음해 드뷔시와 라벨이 다녔던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파리고등국립음악원에 최연소 입학, 역시 3년 만에 최연소 조기졸업을 하였다.

그녀의 연주는 〈뉴욕 타임즈〉, 〈BBC 뮤직〉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고, 스위스, 프랑스, 한국 등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투어를 진행했다. 스위스 "천재씨앗" 재단의 명예회장 임명, 스위스 인종차별 금지운동 주간의 대모 임명, 유럽주간의 대모 임명 아울러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여 2018년 스위스 뉴샤텔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스위스 최고 신문사인 '르 템프(Le Temps)'에서 '스위스를 움직이는 100인' 안에 선정됐다.

"수행 통해 죽음이란 과제 이겨내길"

[인터뷰] 이강옥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죽음은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시종 작동 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떠올려 성찰하는 것만이 죽음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현실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강옥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사진>는 새롭게 펼쳐낸 저서 〈죽음서사와 죽음명상〉에서 '죽음 명상을 통한 바른 성찰'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죽음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포와 두려움, 깊은 어두움으로 표상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누구나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고 일상적인 제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기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조차 그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살려는 집착을 보입니다."

이 교수는 책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죽음을 사유하고 명상하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먼저 죽음을 바로 알도록 제시했다. 죽음에 대한 통념을 설명하고 몸에서 이탈한 혼이 삶과 죽음 이후 사이의 머무는 기간 '바르도'와 생사관에 관련된 환생 혹은 부활, 천국과 극락, 해탈과 열반 등을 엮어 죽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정립하도록 도왔다. 또 교수 생활 가운데 연구한 한국 구전 서사 및 야담 등에서 발췌한 죽음 서사를 총망라해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사관을 살펴보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엔 실천 가능한 죽음명상과 수행법을 설명해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이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쳐낸 책이다. 마지막 주제로 죽음을 선정하고 담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당부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만져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은 타락하지 않게 되고 죽음은 평화로운 절차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봉직했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고려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두계학술상(2020), 지훈국학상(2015), 천마학술상(2008), 성산학술상(1999) 등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봉행

4월 9~10일, 코로나19 소멸 및 국운융창 기원


해인사는 4월 9일~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제 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개최한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9일~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제 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개최한다. 전쟁, 질병, 가난이라는 삼재를 소멸하고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정대불사는 팔만대장경 조성 정신을 이어 〈반야심경〉 사경도 진행한다. 사경지는 정대불사 동참자에 한해 접수실에서 배포하며, 동참자는 미리 사경을 해오거나 행사 당일 사경을 해 동참할 수 있다. 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인사로 우편을 통해 보내면 회향일 진행할 소전의식 때 함께 태운다.

행사는 4월 9일 대장경 이운행렬 재현과 다채로운 불교문화체험이 이어지며 4월 10일에는 봉찬법요식, 경전합송, 장경판전 내부 순례 및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및 장경판전 공덕주 헌다례, 사경 소전의식 등이 진행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팔만대장경의 의미와 조성한 선조들의 정성을 기리는 행사다. 1961년부터 매년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해 봉행하고 있으며 '정대'는 존경의 의미로 동참자들은 머리에 경판을 이고 옮기는 의식을 재현해 진리의 법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담는다. 5년 전 부터는 국가적 무형문화로 인정받아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전환됐다. 055)934-3105~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 도솔암,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


밀양 도솔암은 3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밀양 도솔암(주지 덕산)은 3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을 진행했다. 점안식에는 도솔암 주지 덕산 스님, 부산 백련사 대방 스님, 김해 법성사 자운 스님, 대구 능인선원 혜장 스님을 비롯해 대구BTN 불교합창단 최흥철 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점안식은 점안의식 및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합창단의 음성공양, 인사말과 축하 무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스님들과 대구 BTN 합창단과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발원한다"며 "모두가 도솔암과 더불어 용맹정진하여 시방세계 두루 평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광명사, 독거어르신 보양식 전달


광명사는 3월 16일 광명사 무료급식소에서 보양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명사(주지 법경)는 3월 16일 광명사 무료급식소에서 보양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보양식은 삼계탕이며 지역내 독거 어르신 150가구에 전달됐다. 보양식 전달은 추운 겨울 동안 지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지 법경 스님은 "어르신들의 거처를 방문할 때마다 힘이 없으시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걸 본다"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활력있는 일상 속에 지낼 때까지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명사 무료급식소는 2017년 6월부터 매달 1,3주 화요일 지역 소외 이웃 200여 명을 위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을 조리해 도시락 배달을 실시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부산·대구 수강문의 : H·P 010-4501-8711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